

中央藥大 同門會報

The Alumni News of the Chungang University College of Pharmacy

2023
vol. 52

Summer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Contents

중앙약대 동문회보 2023년 여름호

시론

- 3 **시절 인연**
여러분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입니다
김학선(37회)

제24대 회장단 인사말

- 5 **새롭게, 함께 하는 컨넥팅 동문회**
정상수(24회) 동문회장

- 6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의리, 목심이 부드럽게 연출되는 시대**
김영희(28회) 여동문회장

- 7 **제24대 회장단**

동문회소식

- 9 **화보**
- 12 **202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Brav●your future!
- 16 **단양 전지 최종이사회**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잔도 둘레길로 이어진 화합의 여정
함인혜(32회)
- 18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6차 정기총회**
기대에 걸맞는 품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문회
- 21 **약학대학 동문회 2023년도 초도이사회**
새롭게 함께하는 컨넥팅 동문회

동기회소식

- 22 **내일의 비를 위하여**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마라
79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여행을 다녀와서
현기원(27회)

특별기고

- 24 **봉사하는 삶의 원천, 동문회로 귀결되다**
재미 김목자(8회) 동문,
동문회 장학기금 1000만원 기부

별난동문이야기

- 26 **약사님이 국회에는 무슨 일로?**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하는 약사
노의현(54회)

문학산책

- 28 **동백을 노래한 어느 시인에게**
김종기(18회)

약국도움이야기

- 29 **조루중**
편집위원회

학교소식

- 35 **· 약학대학, 2023-1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 약학대학 동문회장 권석형
(쥬노바렉스 대표, 발전기금 1억 쾌척)
· 약학대학, 약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 38 **회비내역**

- 41 **장학기금**

- 42 **만평**

- 43 **편집후기**

시절 인연

- 여러분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입니다

조금 어두웠지만 가장 빛났고 초라하지만 가장 화려했던 시절. 시작은 겨울이었지요. 두려워서 못한 전화 대신 흔들리는 나무판에서 발견한 이름. 온 가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루이스 가든에서.

꽃 피는 봄을 따라 학교에 갔지요. 교문을 지나면 들려오던 노랫소리, 건네지는 중대 신문. 하나 곧 절망. 그것은 아니었어요. 고민하진 않았지만 계속 주저앉았지요. 말하자면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길게 가진 않았습다. 곧 시절 인연(時節 因緣)이 시작된 거지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같이 했고 약속을 하지 않아도 만났지요. 곁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깃발이 나부끼고 폭죽 소리가 들립니다. 걸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항쟁 2년이 지났지만 싸움은 그대로, 연기를 피해 달아났지요. 창문 밖에서 외침이 들립니다. 흑석동 좁은 길이 두 개로 나누어지지요. 연못 시장 버스 종점에 낯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사랑 비슷한 것을 하고 이별이란 말도 없이 헤어졌어요. 친구들과는 시간이 달라졌지요. 되돌리고 싶었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 또 다른 시절 인연.

시간이 많이 비어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읽는 대신 시험공부. 문 앞엔 사람 대신 가방이 줄을 서고, 자리를 잡지 못해 빈 의자를 찾아다니는 메뚜기도 많았지요.

얼마나 양질의 소스(족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성적이 달라지던 시절. 선배들에게 필사적으로 로비, 재수 좋으면 파이프홀 2층의 캐비닛과 함께 인수



김 학 선(37회)

했지요. 인간관계 안 좋은 사람은 소스 빌려 중대 복사로 달려가고, 시험 때 복사집은 오존향이 가득했지요.

시험이 끝나면 제대한 기분.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 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방학 없는 사회생활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정작 했던 것은 늦잠뿐이었습니다. 실습 시험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체 공휴일에 조제하는 기분, 분명 노는 날인데 신경 쓰고 공부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재시라도 뜨면 그것은 재입대와 마찬가지로.

졸업고사와 약사고시를 마치고 다시 루이스 가든에서 가족들과 기념 촬영. 진짜 어른이 됐습니다. 첫 월급으로 최신식 128Kbps 모뎀을 구매, 경이로운 속도에 감탄하며 자본주의 만세를 불렀지요. 반근 토요일에 소소한 제대의 해방감을 느끼고 OHP 필름 프리젠테이션에 익숙해질 무렵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가 생기니 경제적인 개념의 변화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두고 근무 약사를 시작했지요. 당시 약국은 임의 분업 시절, 조제를 할 줄 몰라 선배들에게 처방을 배우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시간이 지나 졸업 20주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수줍어하고 있을 때 한 친구가 용기 내어 말을 꺼내 그 동기는 회장이 됐고 나는 지명직 총무가 되었지요. 멀리 보면 물음표였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며 희망을 쌓았습니다. 많은 동기들이 참여해 준 덕이었지요.

다시 큰 행사가 열립니다. 올해는 30주년. 역시 아직은 수줍음을 뽐내고 있지요. 하지만 그때보다는 다들 여유가 있으니 차차 빌드업하리라 기대해 봅니다.

오랜만에 가본 흑석동. 좁은 길은 그대로인데 루이스 가든 자리에는 아스팔트와 약학대학 R&D센터가 서 있었고, 파이프홀은 센터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더군요. 헬레벌떡 뛰어오르던 도서관 계단에는 무려 에스컬레이터가 놓여있었습니다. 이것들 또한 누군가의 기억에 남은 오브제들이겠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이 지면 사이 30센티미터는 온 우주를 통틀어나와 여러분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영원히 새겨질 대리석 조각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입니다.



새롭게, 함께 하는 컨넥팅 동문회



정 상 수(24회)
동문회장

존경하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 여러분!

금년 6월 초 24대 동문회장으로 선임된 24회 졸업생 정상수입니다. 총회와 초도 이사회를 통하여 취임 인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동문님을 접하는 동문회보 인사 말씀에 이르러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4대 동문회의 슬로건은 '새롭게, 함께하는 컨넥팅 동문회' 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다양한 사회진출로 본인의 성장과 함께 모교의 명예를 지키고, 동시에 세계로 뻗어 가는 동문들의 활약에 도움이 되는 멋진 동문회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회무를 맡은 이상 약계에서 최고의 긍지를 갖고 계신 선후배님들이 기꺼이 참여하는 화합과 통합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부하건대 중앙대 약대는 중앙대의 간판이자 약학대학의 선두 주자이며 대한약사회의 얼굴입니다. '선배에게는 존경을 후배에게는 사랑을~'이라는 구호를 앞세우며 선후배의 조화를 위해서는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동문 모두가 참여와 희생의 자세로 함께 할 때 더욱 발전하는 동문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더욱이 올해는 중앙대 약대가 설립된 지 7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명실상부 약사회, 병원약사회 그리고 제약산업계까지 최고의 자리를 지켜 오신 선배님, 교수님, 우수한 후배 학생들의 헌신에 머리 숙여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올 하반기 이에 걸맞는 뜻깊은 행사를 기획하는바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동문회보가 지금까지 훌륭하신 선배님들의 순수한 봉사정신 하나로 꾸려져 왔습니다만 이 또한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동문님들 사이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회보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취임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의 자리에 걸맞게 동문회의 각종 현안에 무게 중심을 잘 잡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선후배님들은 조언과 사랑의 마음으로 늘 함께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의리, 독심이 부드럽게 연출되는 시대



김영희(28회)
여동문회장

존경하는 선배님, 사랑하는 후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중앙대 약대 여동문화 회장으로 선출된 28회 김영희 동문 인사드립니다.

1984년 10월에 마포구 공덕동에서 개업하여 서교호텔 동문화 총회부터 참여하기 시작해서 어언 4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가 본 동문회는 기라성 같은 1회 김기홍 선배님을 비롯해 3회 최종목, 5회 김명섭, 8회 조의환, 8회 한석원, 13회 문재빈 선배님을 위시해서 대한약사회 임원, 서울시약사회 임원, 서울시 분회장, 유명제약사 대표님 등 새내기 약사로서 면발치에서 쳐다보기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워 중앙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당시에 가졌던 모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제 머리에 제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 해도 빠짐없이 동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저를 보시고 선배님들이 “영희야 너 꼭 동문화장 해라!”고 말씀들 하셨는데 비록 반쪽이기는 하나 이제 여동문화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세월이 지날수록 견고해지고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대한민국 약사의 업권과 위상을 회복시킬 방법에 대한 해법을 늘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 중심에 중앙대 약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만의 고민이었지만 많은 약사들 중에서도 중앙대 동문 선배님들의 발전과 모교 중앙대 약대가 약대 중에서 우뚝서게 하고 싶다는 소망은 저에게는 큰 화두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앙대 약대는 남녀공학이지만 실체는 남동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여동문들의 능력이나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동문 입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늘 존재하는 현실을 말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의리, 독심이 부드럽게 연출되는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동문화회장으로서 지금까지 위축되고 평가절하되어 있는 능력있는 여동문님 중에 인재를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여동문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까운 미래에 우려되는 약사회장 인물군의 부족과 부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흑배 논리에 의한 대책과 대립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목표 아래 정상수 회장님과 의논하여 진행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믿고 여동문화회장으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동문 고문님들과 후배님, 동기님들께 감사드리며 동문화 발전의 작은 밑일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24대 회장단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회장	24회	 정상수	부회장	24회	김동섭, 김승재, 김태두, 박길태, 변영건, 양성삼, 윤원철, 이범도, 이희상, 장규옥, 정종근, 조종래, 최인원, 최종정, 함한성, 황규진
여동문회장	28회	 김영희		25회	김광호, 문태화, 이광인, 이현수, 최두주
수석부회장	24회	 이광섭		26회	박정래, 최민규, 한갑현, 황완균
	24회	 이규삼		27회	곽나윤, 박영달, 한봉길
	24회	 임무호		28회	구영삼,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24회	 최영욱		29회	강대용, 김인혜, 김형수, 류형준, 이종민, 이종욱
	24회	 함삼균		30회	김광식, 백영주, 이장무, 최병원
사무총장	36회	 임성호		31회	심명섭
사무부총장	34회	 이선민		32회	김신규, 김익수, 임형미, 정선중, 조양연, 진창연, 함인혜
	36회	 김진수		33회	강기석, 김정태, 신명수
	45회	 고기현		34회	신수민
				35회	곽정근, 김 진, 예현주, 은형주, 이경선
				36회	박종구, 우경아, 정창훈
				38회	김병욱, 진정주
				39회	이정근
				41회	김소연, 김유강, 김정민, 이도성, 정동현, 최명수
				42회	이광희
				43회	김만석, 김준식, 이경은, 장동훈

제24대 감사단

기수	성명	기수	성명	기수	성명
21회	김수배	22회	강희윤	23회	서동철

제24대 상임위원단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직위	기수	성명
· 기금운영관리	24회	정상수	윤리	23회	하충렬	병원	33회	이용석
· 특별위원회			편집	18회	김기명	홍보	58회	김은혜
· 권익옹호			섭외	42회	이광희	정보통신	45회	조은구
사무총장	36회	임성호	제약경영	43회	김만석	문화체육	39회	방근철
사무부총장	34회	이선민	공직약사	32회	손수정	청년약사	57회	서해준
	36회	김진수	ROTC	24회	김승재	청년약사	58회	김태수
	45회	고기현	학술	29회	이 준	청년약사	62회	김준하

제24대 이사

1회	김기홍, 김순일, 박학전, 홍흥만	23회	권석형, 강한구, 김수중,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윤명숙 이계석, 이승하, 임준석, 정덕기, 정종서, 조종호, 최의한 하충열, 홍순옥
2회	김종욱, 김홍식, 신양균, 이문규, 정덕화, 황재수	24회	심영철, 윤세형, 이동훈, 이상훈, 이형수
3회	강승조, 김석자, 박종순, 배영식, 선우연, 손석우, 안경식 이기상, 이병균, 최종묵	25회	고성권, 김완기, 김준규, 김희섭, 백광현, 성낙순, 이내홍 이만원, 이종인
4회	김기호, 김현용, 김홍수, 안국영, 정재환, 천홍기, 한민희 허인희	26회	김안식, 김정수B, 김학철, 김화기, 선우일원, 손영상 유영한, 윤광중, 윤용혁, 이영준
5회	강태일, 김상오, 김영배, 김채운, 윤원영, 정훈교, 조동준	27회	김덕진, 민병희, 박수길, 변옥희, 서평석, 오소용, 오홍설 유재수, 윤영한, 이원일, 최기선, 최중대, 최총식, 현기원
6회	김경희, 김동열, 김태형, 박정배,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유승균, 임완호, 전희태	28회	강철순, 고재호, 김유곤, 신영무, 유희동, 이병천, 이숙희 전금용, 정원태, 조상오, 조형진, 최용철, 한용문
7회	김영일, 김정부, 박명신, 박숙자, 배동운, 신완균, 용영일 유영후, 이양현, 이용원, 정재일, 정조원, 최춘자	29회	강춘원, 박웅삼, 서경원, 손병로, 유종운, 이 준, 하수량 한일룡, 현상배
8회	김목자, 김연희, 김일래, 김홍자, 박도규, 박번일, 배영애 오창준, 이상돈, 이백천, 임상묵, 조의환, 최영자, 한석원 허근희	30회	고석일, 김성배(김해승), 김연하, 김정일, 김혜수, 신일균 윤미숙, 이진우, 정의차, 최병태, 현익상, 홍성광
9회	권혁구, 김영빈, 김홍래, 문영동, 박성학, 박장우, 윤광노 이규진, 이근배, 최영근	31회	김성국, 변동성,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이춘노
10회	김광일, 김명민, 박호일, 방순환, 변도문, 심수일, 유정사 이홍수, 정수길, 정영기, 조규동	32회	박병호, 손수정,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승업, 김정길,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신명승, 이철규, 정덕호, 허정범, 황공용, 황문상	33회	김영재, 김은곤, 이용석, 이정수, 조준상
12회	남기탁, 노덕태, 노석준, 박영찬, 심재웅, 염윤기, 우준하 이관하, 이성우, 이정규, 이호섭, 이효훈, 조택상	34회	임현주, 김보원, 전형수, 한일권
13회	구연홍, 김중성,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엄계숙 윤해선, 이상길, 이충식, 임유재, 최창엽	35회	강익석, 김미정, 도건호, 서우정, 송지숙, 양윤정, 오창현 이기훈, 이성주, 임종식, 최규룡, 황광우
14회	구종모, 김동원, 김명용, 김원순, 김중열, 신광근, 양인승 윤대봉, 정도언, 조길도, 조병화	36회	이정석, 임기민
15회	고동석, 김용의, 박석동, 오세일, 원장희, 윤종준, 이상용 이영운, 임영식, 조찬휘	37회	김학선, 안의성, 이정우, 장미경
16회	고숙자, 권영복, 백승복, 송용만, 안태환, 이상규, 유기욱 이범준, 이은솔, 이은주, 조기현, 차동일, 최광식, 최창원 하상권, 한인희, 허사길	38회	김인성, 임항숙, 최은영
17회	김성택, 김인형, 선우영환, 신상직, 이완철, 장재인 전상훈, 전선영, 전우준, 정대진	39회	권성렬, 민필기, 박성훈, 방근철, 한은경
18회	강응모, 김기명, 김상각, 김애경, 박계환, 전광우, 정명진 조중형	42회	민지홍, 정동만, 정원석
19회	권창호, 김경오, 김재민, 김행소, 남상구, 박효식, 안병호 옥태석, 윤건섭, 이경욱, 이창욱, 임종철, 장호성	44회	이선영
20회	구장림, 권오규, 김대승, 김영식, 김현태, 김홍진, 류화송 문주기, 박기배, 박영근, 배성진, 송창수, 이극선, 이상일 이영희, 이호선, 임경원, 임구래, 정찬현, 조진환, 최석중 한광식	45회	김권식, 조은구
21회	김대일, 김중효, 백운경, 양주석, 홍종오	46회	민지홍
22회	고석순, 김인선, 김태일, 김홍진, 박동우, 박상용, 손의동 오황영, 유대식, 이규홍, 이명옥, 이정석, 이준상, 이진우 이현희, 전일수, 차달성, 천경호,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47회	남우현
		48회	차자현
		49회	김성근, 김원호
		50회	남윤성
		51회	김홍진, 문효진
		52회	장진영
		53회	강형규
		54회	임재춘
		55회	김민성, 김성태
		56회	신상윤, 이경민
		57회	김 윤, 서해준, 주혜진
		58회	김희주, 김은혜, 김태수
		59회	이기철
		60회	한석경
		61회	정영섭
		62회	김준하, 박영호
		63회	오교빈
		64회	이민구



01

3월 24일_ 회장단회의

02

03

4월 1일_ 여동문회 운영위원회
(차기 여동문회장 선임 건)

4월 10일_ 김목자(8회) 동문 장학기금 기부식





4월 15일_ 감사 수감

4월 23일_ 전지 최종이사회

5월 4일_ 고문단회의

01

02

03





6월 4일_ 32회 동기회 모임

6월 13일_ 제23대, 제24대 동문회 인수인계

6월 28일_ 편집위원회회의

7월 1일_ 여동문회 고문단회의



01

02

03

04



2023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학위수여식



사람간 섬세하고 풍부한 관계성을
더 소중히 여기자!

약학전공 59명, 제약학전공 58명 총 117명의 약학사 배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23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023년 2월 15일 102관(약학대학 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영예의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의 축하 속에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입학해서 잠시 캠퍼스 생활을 즐겼으나 이어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동기들간 제대로 된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학교를 떠나게 된 아픈 기억을 가진 졸업생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일까, 더 애뜻한 마음일 수밖에 없는 졸업생들이 예년과 달리 거의 빠짐없이 식장에 참석을 한 것으로 보였으며, 물론 같은 심정일 가족들의 격려와 환호로 오랜만에 잔칫집 같은 정겨운 광경을 연출하여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처럼 훈훈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67회로 약학전공 59명, 제약학전공 58명 등 총 117명의 졸업생들이 배출되었다.





약학대학 학부장 나동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은 경과보고에 이어 황광우(35회) 학장의 식사로 시작이 되었다. 약학대학 동문회장을 위시하여 특별히 시상을 마련한 제약회사 선배들이 다수 참석하여 후배들을 격려해 주었으며, 특히 신입교수들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현직 교수들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해줌으로써 졸업식의 진정한 의미를 빛나게 했다.



황광우 학장은 식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3학년 때 학교생활을 잠시 하다가 이후 2년간 온라인 수업으로만 진행되어 제대로 학교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했다.

황학장은 “이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일여서 신경도 쓰지 않던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적 커뮤니케이션 속에 실제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신체적으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공감, 즉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마음도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섬세하고 풍부한 관계성을 지금보다 더 소중히 여겨 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은 여러 분야에서 약학도로서 과학의 기초적 지식과 소양을 익혀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초 삼아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더 심화된 연구의 길이든 새로운 실제 사회생활이든 건전한 비판 정신, 타인에 대한 섬세한 공감 능력인 감정 이입, 건전하고 배려 깊은 시민으로서 힘차게 날개짓 할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약사로서 선택받은 혜택을 기본적으로 누리되 이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품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 모두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Bravo your future!”라고 당부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서 박상규 총장, 박용현 이사장이 영상을 통해 영예의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진솔하게 전달되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시간을 내어 직접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이명자 동작구 약사회장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 출신학교를 떠나 약사 선배로서 후배들을 격려하는 의미가 남달랐다.



2023년 2월 제67회 졸업생 명단

약학전공

강인민 권오준 근오재 김오우 김오린 김오원 김오영
 김오빈 김오환 김오윤 김오수 김오원 김오서 김오준
 문오철 박오현 박오태 박오우 박오현 박오수 박오주
 박오령 배오청 배오리 배오인 서오연 송오현 신오호
 안오정 안오영 안오정 오오민 오오림 윤오지 이오은
 이오정 이오민 이오정 이오영 이오훈 이오원 이오진
 이오림 임오환 전오서 전오수 전오희 정오지 정오원
 정오현 정오환 정오현 조오원 조오현 조오호 최오솔
 하오훈 한오우 한오진

【이상 : 약학 전공 59명】

제약학전공

강오석 공오현 김오희 김오리 김오지 김오지 김오준
 김오성 김오상 김오연 김오훈 김오은 김오태 김오정
 남오민 박오연 박오현 박오은 박오선 박오연 박오별
 배오현 손오지 신오은 안오인 안오정 안오원 양오원
 여오원 오오주 윤오영 윤오용 윤오원 이오진 이오진
 이오환 이오구 이오은 이오희 이오현 이오영 이오수
 이오현 이오빈 장오주 정오식 정오수 정오주 조오영
 조오기 조오채 조오나 진오호 최오훈 하오정 홍오표
 홍오건 황오령

【이상 : 제약학 전공 58명】

수상자 명단

교내수상자

구분	성명
최우등(대학수석)	김오정
최우등(학부수석)	이오진
최우등	박오은 김오준 손오지 정오현 이오구 김오리 이오민
우등	양오원
우수	안오인
봉사 공로상	이오환
봉사 공로상	조오원

교외수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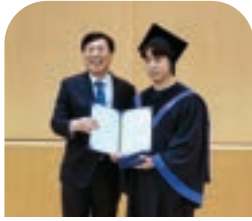
기관명	성명	기관명	성명
대한약사회	김오정	㈜삼진제약	정오현
서울특별시약사회	이오진	㈜건일제약	이오민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박오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정오지 배오현 이오현 정오현 한오우
경기도약사회	오오림	㈜노바렉스	김오준
동작구약사회	양오원	㈜큐엘파마	박오태
본동문화	이오구	㈜지엘팜텍	강오민
여동문화	김오리	㈜온누리에이치엔씨	정오주
㈜한미약품	김오준	㈜하이텍팜	김오영
㈜일동제약	손오지		

교내 학술상 우등 수상자

강오민, 근오재, 김오수, 김오준, 문오철, 박오태, 배오현, 양오원, 오오민, 오오림, 이오영, 전오희, 정오지, 정오주, 한오진

교내 학술상 우수 수상자

강오석, 김오원, 김오성, 김오상, 김오윤, 김오서, 남오민, 박오현, 박오선, 박오연, 서오연, 안오인, 여오원, 윤오영, 윤오용, 윤오원, 임오환, 장오주, 하오정



권석형(23회) 동문회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대표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별인정 원료를 개발한 연구소를 가진 성공한 기업인이라는 자부심을 예로 들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설레임의 변곡점에 서 있는 후배들에게 “성공의 모습은 모두 다르다. 성공은 한가지의 모습이 아니며,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성공의 모습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다. 나답게 행동하는 것을 겁내지 마라.

또한 운 좋은 사람이 되라. 운이 좋은 사람은 얽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코가 트인다.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중하고, 온 마음을 다해야 열 번 중 한 번 그 운을 어렵게 만날 수 있다. 행운은 찾아다니지 않는 사람에게서 절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내 사람들과 그 길을 걸어라. 인연을 맺은 사람과는 끝까지 그 인연을 이어간다. 내가 힘들 때 날 도와준 사람, 내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 같이 걸어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았다. 입학해서 오늘까지 함께 한 동문들은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다. 끝과 시작은 언제나 함께다”라며 겁내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강조했다.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학위증 수여 의식이었다. 황광우 학장은 약학과 및 제약학으로 나눠 학생대표에게 학위증을 수여하고, 이어서 참석한 모든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증 수여 및 학사모의 태슬(술)을 넘겨줌으로써 명실공히 학사로 탄생하는 기쁨을 같이 했다. 참석한 모든 교수들이 단상에 도열하여 참석한 졸업생 한 사람 한 사람과 가벼운 손인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함으로써 졸업생들의 전도를 축하하는 따뜻한 교감의 장을 연출했다. 마지막 순서로 학생회장을 역임한 공을 인정받아 봉사공로상을 받은 이도환 학생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어려웠던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동기들에 대한 애뜻함과 고마움이 묻어나는 소감을 토로하며 앞날의 성공을 비는 인사를 했다. MZ세대라고 하는데, 약사들이라고 예외 없이 중간중간 그들만의 추임새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이 어떤 덕담보다 큰 울림을 주었으며, 동기들, 부모님, 교수님들을 위해 아낌없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함인혜(32회)



단양 전지 최종이사회

도담삼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잔도 둘레길로 이어진 화합의 여정

2023년 4월 23일 충북 단양으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전지 최종이사회를 위해 오전 8시 약사회관 앞에서 출발하기로 한 날이다. 뜻있는 행사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자 서둘러 도착해 보니 벌써 여러 동문 선배님과 후배님들이 도착해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다.

코로나 시국이 겹치면서 단체 행사에 혹여 참여를 불편해 하시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지만, 생각 이상으로 많은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셔서 2대의 버스를 동원할 정도의 규모에 힘을 얻었으며, 좌석배치표를 보고 나누어 승차한 후 출출함을 달래 주는 간식을 맛있게 즐기면서 충북 단양으로 향하였다.

참여하신 많은 동문들 외에 내빈으로 허인회(4회) 명예교수, 황완균(26회) 교수를 위시하여 임완호(6회), 유정사(10회), 장재인(17회), 김현태(20회) 고문, 김창종(11회), 조찬휘(15회) 자문위원, 김홍진(20회), 김수배(21회) 감사, 그리고 여동문회 김희식(28회) 회장, 이경옥(19회), 양덕숙(28회) 고문이 참여하여 전 일정을 같이 하며 동문회 본연의 화합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친숙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처음 뵙는 선·후배님들과 간단히 인사를 하면서 2시간 정도 걸려서 충북 단양의 도담삼봉 앞에 도착하였다.

그곳에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 주신 천안의 방용남(23회), 평택의 윤명숙(23회), 포항의 김진(35회), 제천의 조순현(25회), 그리고 권송상(26회) 동문들이 소개되자 뜨거운 박수가 그치지 않는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었다. 서로서로 안부를 묻고 반가운 인사를 나누면서 눈 앞에 펼쳐진 멋진 풍경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 사진 촬영과 단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완전체가 된 우리 동문들이 유람선을 타고 단양팔경 중 제 1경인 도담삼봉을 필두로 석문, 은주암, 자라바위, 금굴 등의 설명을 들으며 단양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출발점에서부터 감지된 좋은 분위기에 유람선 투어의 열기가 그대로 이어지며 지역의 명소인 향토음식점에서 쏘가리 매운탕을 위시한 맛깔난 음식으로 서로의 정을 나누며 점심을 했다.

식사 후 자세를 가다듬고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최종이사회가 진행되어 당면한 중요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회의를 마친 후에 남한강 절벽 위에서 80~90m 수면 아래를 내려보며 하늘길을 걷는 스릴을 맛볼 수 있는 만천하 스카이워크로 올라가서 멀리 소백산 연화봉과 단양 시내 전경을 감상했다. 말굽형의 만학천봉 전망대에 쓰리 핑거(세 손가락) 형태의 길이 15m, 폭 2m의 고강도 삼중 유리를 통해 발밑에 흐르는 남한강을 내려다보며 절벽 끝에서 걷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 단양잔도 둘레길을 가볍게 산책하면 아름다운 봄 날씨와 단양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기쁨을 누렸다.

단양잔도 둘레길 산책 후에 다른 일정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주신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님 일행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코로나 시국 이후에 3년만에 열린 전지 이사회라 많은 동문님들의 많은 기대 속에서 진행되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4월의 멋진 추억도 만들었으며, 돈독한 선후배의 유대를 확인한 행복한 일정이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서울 도착 후에 약사회관 근처에서 저녁식사로 다음을 기약하면서 아쉬움의 발길을 돌렸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6차 정기총회

기대에 걸맞는 품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문회



참여와 희생을 바탕으로
화합과 통합의 네트워크 형성

신임 동문회장에 정상수(24회) 동문
여동문회장에 김영희(28회) 동문 선임

지난 6월 3일 롯데호텔서울 사파이어볼룸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제66차(2023 회계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끊어졌던 대면 회의를 눈치보지 않고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제반 여건이 호전된 것에 힘입어 만찬을 겸한 선후배 만남의 자리를 가진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시위 등으로 혼잡한 교통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많은 동문들이 시간에 맞춰 참석하여 23대 집행부의 동문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년을 이끌고 갈 수장을 선임하는 중차대한 모임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권석형(23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21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선후배간 단합된 모습과 초심을 잃지 않는 견고한 동문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어 “선후배들의 화합과 결속을 위한 소통창구인 동문회 홈페이지도 개설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동문 골프대회와 체육대회 역시 재개되어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다. 모교가 70년의 역사 속에서 명실상부한 국내의 선도대학으로 자리잡은 데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사회에 새로운 리더십이 요구되는 약계의 상황에서 큰 책임감과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타의 모범이 되자. 동문회장으로 봉사한 시간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으며, 모교의 발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도록 하겠다”고 퇴임의 변을 밝혀 참석한 동문들의 진심어린 박수갈채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총동문회 **신현국 동문회장**은 약계의 폭넓은 내외빈들의 참석 열기에 놀라움을 표하며 “1953년 약학과 개설 이래 명실상부한 중앙대학교의 간판대학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제약산업의 핵심인재 양성과 함께 보건의료 전문인으로서 국민건강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 경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최광훈(22회)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보건의료체계의 중추로서 약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 동문들의 열정과 후원을 바탕으로 공공심야약국, 전문약사 제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및 이와 연관된 공적처방시스템 구축 등 현안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약사정책이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황광우(35회) 모교 학장은 축사에서 “국내 최고의 명문 약학대학이라는 명성은 동문들의 자부심과 시대를 앞서 가는 혜안과 지도력에 힘입은 바 크다. 60억원이 넘는 엄청난 발전기금으로 약학관이 위풍당당한 자태를 드러냈고, 매 학기 4천만원이 넘는 장학금도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여되고 있다. 올해는 약학과 개설 70주년을 맞아 약학대학 identification 사업과 중앙대학교 약학역사관을 준비하고 있는바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27회) 회장의 덕담과 축사가 이어지며 총회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열기가 고스란히 이어진 만찬에서 대선배인 홍흥만 1기 동기회장을 필두로 한석원(8회), 조찬휘(15회) 전 대약회장의 건배 제의에 더해 원희목 전 대약회장이자 현 서울약대 동문회장의 덕담까지 이어지며 총회가 축제의 장이 되는데 일조했다.

공식행사의 2부에서는 회무보고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결산 심의와 2022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결산 심의의 건, 감사보고, 2023년도 사업계획(안), 2023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3년도 특별회계(장학기금) 예산(안) 등에 대한 승인이 최병원(30회) 사무총장의 핵심 사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곁들여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이루어졌다.

특히 감사보고가 마무리된 후 김홍진(20회) 선임감사가 23대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로 개인 자격으로 권석형 동문회장과 최병원 사무총장에게 축하 화환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여 참석한 동문들의 열렬한 환호와 함께 뜨거운 축하박수를 받았다.

수상자 명단

총장 공로패	총동창회장 공로패	학장 공로패	동문회장 공로패
			
김기명(18회) 정명진(18회) 김홍진(20회)	홍순욱(23회) 김인혜(29회)	손수정(32회) 푸른구름회	조기현(16회) 박주돈(26회) 박복자(29회) 김진(35회) 이정석(36회)

이어서 새로이 24대 집행부를 이끌어 갈 신임 회장으로 정상수(24회) 파마리서치 회장이 추대되어 “약학대학 동문회장이라는 직을 맡게 되어 감사와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왕 회무를 맡은 이상 모든 동문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화합과 통합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대에 걸맞는 품격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문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며 참여와 희생을 바탕으로 통합을 최우선시하여 동문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

같이 수고해 줄 사무총장으로 임성호(36회) 동문을, 그리고 새로운 감사단으로 김수배(21회), 강희운(22회), 서동철(23회) 동문이 선임되며 대미를 장식했다.

참석한 내빈으로는 김채윤(5회), 유영후(7회), 유정사(10회), 서국진(13회), 장재인(17회) 고문, 한석원(8회), 김창중(11회), 조찬휘(15회), 손의동(22회) 자문위원, 그리고 김홍진(20회), 김수배(21회), 강희운(22회) 감사를 비롯하여 김희식(28회) 여동문회장, 이경옥(19회), 양덕숙(28회) 여동문회 고문이 자리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22회) 회장을 위시하여 대약 총회 정명진(18회) 부회장, 약학정보원 김현태(20회) 원장, 박영달(27회) 경기도약사회장을 위시하여 서울시 약사회 영등포구 이종욱(29회), 중구 김인혜(29회), 은평구 우경아(36회), 금천구 박종구(36회), 도봉강북구 김병욱(38회) 분회장이, 그리고 군포시 이영주(28회), 구리시 정선중(32회) 분회장이 우정 참석하여 협조와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 약학대학 황광우(35회) 학장과 나동희 학부장을 비롯하여 허인회(4회), 서동철(23회) 명예교수, 박희용(23회),



최영욱(24회), 이민원(25회), 황완균(26회), 이종혁(41회), 이지윤(46회), 이성훈(51회), 김은영, 김재현, 민혜영, 유지호, 정경혜, 정선영 교수 외에 인사할 기회가 없었던 이상길(41회), 오미현 교수 등 신임교수들이 참석하여 반갑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다른 약학대학 동문회장들이 대거 참석하여 모처럼의 모임이 더욱 빛나도록 해주었는데, 덕성여대 김춘경 회장, 동덕여대 윤영미 회장, 삼육대학 최홍진 부회장, 서울대 원희목 회장, 성균관대 임은주 회장, 숙명여대 허인영 회장과 개국동문회 서미영 회장, 이화여대 박병희 회장과 개국동문회 조영희 회장 등이 참석하여 동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특히 제일 선임인 홍흥만(1회) 동기회장과 막내에 해당하는 이창두(59회), 이왕태(61회), 김준하(62회) 동문과 함께 재학생으로 제1기 약학대학 홍보대사인 약학과 5학년 백지연, 제약학과 4학년 조수만 학생이 소개되어 우리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새롭게 함께하는 커넥팅 동문회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24대 회장단 상견례 및 2023 회계년도 초도이사회가 7월 22일 노보텔엠버서더강남에서 열렸다.

지난 제66차 동문회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정상수 24대 동문회장(파마리서치 회장)은 '새롭게 함께하는 커넥팅 동문회'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문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졸업생과 재학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동문회를 그려 나가면서 청년약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정상수 동문회장과 함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 밝혔고, 황광우 모교 약학대학장은 동문회의 무한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개교 70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70주년 행사 기획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24대 동문회는 앞서 밝힌 '새롭게 함께하는 커넥팅 동문회' 슬로건을 바탕으로 2023 회계년도 사업계획을 첫째, 각 지역 동문회 활성화, 둘째 선후배간 유대강화, 셋째 소통 증진으로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소상하게 밝혔다.

폐회에 앞서 향후 동문회 업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24대 회장단을 소개하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회장단이 되겠다는 약속으로 새로운 동문회 출범의 포부를 밝혔다.



현 기 원(27회)



내일의 비를 위하여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마라

79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여행을 다녀와서



공교롭게도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동기 25명을 태운 리무진이 강진을 향하고 있었다. 코로나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 그동안 카카오톡 방에서 간간히 소식만 전하던 터였다. 부슬부슬 비가 오건만 다들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나누고 인사하기 바빴다. 십 년에 한 번 변한다는 강산을 우리는 4번을 지나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약사란 직업을 다들 부러워한다지만 의약분업 이후 나 홀로 약국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부득이하게 이 날을 택한 것이다. 나이들이 있다 보니 대체로 거의 같은 규모의 약국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약사회 임원에서 손을 떼 세대라 하지만 각자 젊은 시절 함께 한 모임들이 많이 있다 보니 동기들끼리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쉽지만은 않다.

흥분된 마음 탓일까, 버스에서부터 여흥이 시작되었다. '낮술을 먹으면 제 부모도 못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밀리는 도로 상황이다 보니 한잔 술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친구들도 있고 누구라 할 거 없이 흥에 겨워 떼창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두고 살맛이 난다고 하는 것일 것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거나 나 무랄 일이라고는 없다. 다 함께 친구이니 다른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

유일한 흥일점 옥희씨, 참으로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여자 동기로는 혼자 동행했으니 용감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동기들이 그리워 어려운 걸음을 나섰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몇 해 전 자신의 집으로 동기들을 초대하여 한판 어우러짐이 있었다. 그 이후로 함께 했던 친구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친근해 질 수 있었음을 아는 친구들은 다 안다. 이번 모임에 참가한 몇몇 동기들의 동행도 옥희씨의 영향이 크게 빛났다고 단언하고 싶다.



강진 초당연수원에서 벌어진 노래와 춤의 시간도 즐거웠지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자정이 지나도록 잠들지 못한 동기들이 앞으로 기회되면 이런 시간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다. 아마도 그동안 이런 시간을 가질 여유 없이 그저 바쁘게 살아온 것에 대한 회한일지도 모르겠다.

강진 맛집 투어, 가우도 집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 아름다운 백련사길 트레킹, 순천만 생태공원, 거대한 습지와 갈대밭, 순천만 국가 정원에서 함께 걸으며 사진을 촬영하고 웃고 떠들었던 그 시간,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만 같다.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혼자보다 우리가 좋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체험한 시간이 모두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된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모임에 동참했던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본다. 오승이, 덕진이, 명정이, 영태, 흥규, 수길이, 영달이, 건모, 순용이, 흥설이, 영한이, 우진이, 명수, 봉길이, 현수, 상필이, 성제, 상규, 창식이, 준술이, 명훈이, 옥희씨, 기원이.

우리 특방에 65명이 있는데 23명이 함께 했으니 아직도 43명의 친구들에게 희망을 걸어 본다. 하루를 같이 자고 나니 마치 매일 만난 것처럼 느껴진다.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란다. 출발선에서 120명이 함께 했는데 벌써 이십여 명의 친구들이 하늘나라로 떠나갔다. 가는 세월을 그 누가 잡을 수 있는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오래 말뚝이 되고 함께 여행을 떠날 수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동기회장을 맡고 있는 봉길이, 총무 순용이에게 정말 수고했다, 고맙다는 전언과 함께 경기도 약사회장로서 초당연수원을 이용하게 애써 준 영달이에게도 동기들 모두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昨天的下雨 不濕今天的衣裳(작천적하우 불습금천적의상), 어제의 비로 오늘의 옷을 적시지 말고. 明天的下雨 不舒今天的雨傘(명천적하우 불서금천적우산), 내일의 비를 위하여 오늘의 우산을 펴지 마라.

모든 친구들이 하루하루 건강과 행복과 웃음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해 본다.



**재미 김목자(8회) 동문,
동문회 장학기금 1000만원 기부**

지난 4월 10일(월) 오후 3시 모교 약학관 6층에 있는 약학대학 동문회 사무실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기금을 희사한 김목자(8회) 동문은 중앙대 약대 졸업 후 짧은 개국가 생활을 정리하고 도미하여 초창기의 어려움을 딛고 부군을 도와 사업과 후진 교육에 매진해 왔다고 한다.

마침 모국 방문 기회를 이용해서 통상적인 학교 발전기금 같은 유형이 아닌 순수하게 동문회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는 의사를 동기인 삼진제약 조의환 회장을 통해 전해 와서 마련된 자리였다. 동문회 측에서 권석형 동문회장과 최병원 사무총장, 그리고 김희식 여동문회장이 참석하여 김동문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가졌다.



김동문의 평생의 반려자이자 신앙의 동지인 부군(손영환 박사)은 육사를 졸업하고 미육군통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근무 중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되었던 폐결핵 진단을 받고 인간적 고뇌로 힘들어하던 때 대전의 집 근처에서 한일약국을 운영하던 김동문의 조언과 격려로 완치에 이르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생긴 신뢰감을 바탕으로 1968년 결혼에 이르게 되었다. 같은 해 인생항로를 기회의 땅인 미국에서 이루고자 단돈 100달러를 들고 부군을 따라 도미하여,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같이 이겨내며 사업의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장학 및 교육사업을 통한 봉사하는 삶을 살아 왔다.



특히 성공한 사업체로 1981년 창립한 ICT(International Computers & Telecom)의 재정담당 부사장으로 회사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경영에 참여했고(인천국제공항 건설 주계약자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 등), 1998년 IMF 위기가 왔을 때 한국의 불우아동을 도울 목적으로 '나라사랑 어머니회'를 창립해 활동하다가 외국 아동들로 문호를 넓혀 GCF(Global Children Foundation)로 탈바꿈 시키면서 사무총장, 총회장을 거쳐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부군의 인생목표인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설립한 대학 IGU(IGlobal University)의 활동 등 수많은 기회를 통해서 선교와 교육과 장학사업을 통한 봉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김동문은 비록 약사로서의 직능을 직접적으로 활용한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으로 평생의 반려자인 부군을 짧은 약국 생활에서 만났으며, 형편이 어려워 즐겁게 보낼 일이 별반 없던 과거 중앙대 약대 시절의 경험이 은연 중에 인생향로의 설정 및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강하게 자각했다고 한다.

고맙게도 잊지 않고 보내주는 약학대학 동문회보를 통해 중앙대 약대 동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 가면서 기회될 때마다 모국 방문을 통해 동기들과 교류했고, 특히 지난번 졸업 50주년 기념행사에도 다녀갔으며, 얼마 전 중앙대학교 북미주총동창회에서 해외교우상을 수상하는 등 인연의 끈이 끈질기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고 한다.

남은 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마무리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 왔고, 나름대로 가진 것을 베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그 연장선 상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평생을 지탱하게 해준 원동력이 된 중앙대 약대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이번 기회에 동문회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이다.



약사님이 국회에는 무슨 일로?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일하는 약사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선·후배님들!
 저는 약학과 06학번 노의현이라고 합니다.
 동문회보를 통해서 선·후배 약사님들의 소식을 간간히 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긴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공직에 입직하게 된 계기와 하는 업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 느껴 공직 입문

우리 동문 중 공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 국회사무처에 입사하여 2014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전인 2011년에 군 제대 후 약 3개월 정도 약국에서 잠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 의료보호환자와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가까이서 만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이때의 경험이 공직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 의 현(54회)

입사시험을 준비하면서 대학 전공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분야를 학습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합격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막막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공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첫 보직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입법조사관으로 활동

선·후배님께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을 소관으로 하는 입법부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상임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법률과 예·결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속한 입법조사관은 법률 및 예·결산의 주요 내용, 기대효과,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률을 하나 개정할 때마다 그 내용에 따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법조사관은 각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법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평소 접하지 못했던 생소한 분야의 경우 의견을 듣고 정리하는 데 종종 어려움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근무하시는 선·후배님들을 만나면, 까마득한 후배임에도 같은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가급적 하나라도 더 들려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중앙대학교 출신이라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신 선·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 사회는 약사들이 더욱 활발히 진출해야 할 분야

국회는 이런 입법조사관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사무처 외에도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여러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환보직을 통해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은 국회공무원으로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동문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직 사회는 앞으로 우리 약사들이 더욱 활발히 진출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생소하다고 멀리 하기에는 우리 약사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가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동문들이 활약한다면 우리 동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간 선배님들께 받았던 따뜻한 환대를 다른 후배님들께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동문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건강 유의하시고 하루 빨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백을 노래한 어느 시인에게

예끼 이 사람아,
쉽게 살고 쉽게 죽는 법 찾으려
헛고생하질 말게나.

혹여 동백 피는 게 그리 쉽게 보였다면
업동설한 고 독기 다 보듬고도
선홍빛 자태로 애써 한껏 치장한 처자
섬섬할 게네.

여보게,
세상 천지에 수월하게 살고 죽는 게
어디 있다고 그런 소릴 하는가.

한 시절도 잠시
이내 뚝뚝 떨어져
타뜻힌 한 붉디붉게 품고
가쁜 숨 할딱거리는 게 보이지 않는가.

차라리 선홍빛 그 황홀경에
떠나간 꽃 색시 적가슴 그리워
객기 섞인 푸념이라고 하계나.

실없이 사는 것이 더 힘 드는 것이란 것을
야해 알게 되었다면
이 사람아, 가까운 날 택하여 좋은 술 한 잔에
동백 처자處子 한이나 풀어 주게나.

고래야 여타 신세 안 지고
쉽게 귀천하는 법 살짝 알려 줄지 누가 아나.



김 종 기(18회)

* 계간 <현대작가> 2023년 시 부문 신인등단 작품



조루증 Premature Ejaculation

편집위원회

조루증은 사정조절의 장애로 인해 성관계시 만족감을 느끼기 전에 사정이 조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남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성기능장애의 하나다.

조루증은 일시적인 증상이 아니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조루증을 인지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치료해야 한다.

개요

조루(Premature Ejaculation)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 중 하나로, 사정을 지연 시키기 어렵거나 원하기 전에 사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루를 '사정을 본인 의지대로 조절할 수 없거나, 질내 삽입 즉시 또는 최소 자극으로 극치감에 도달해 성교에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루증과 일반 남성의 사정시간 차이

조루증으로 인한 영향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먼저 환자 본인이 심각한 스트레스 및 성적인 자신감, 만족감, 자존심이 저하되어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파트너에게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친밀감이 감소하고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루증에 의한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조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남성은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피하거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소극적이 될 수 있다.

사정의 생리

사정이란 고환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정낭에 축적되었다가 정액의 형태로 음경에서 몸 밖으로 배출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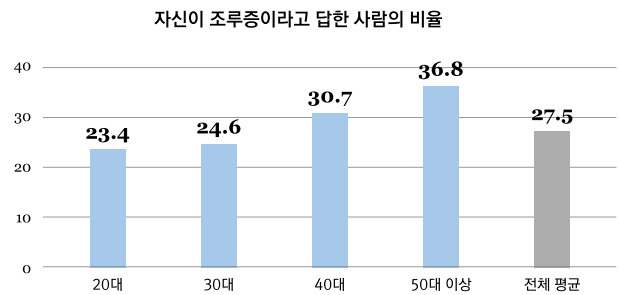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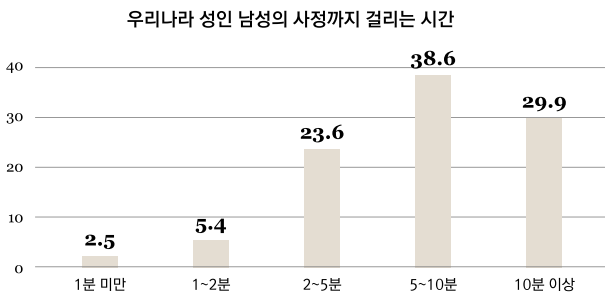
일단 고환에서 생성된 정자가 부고환과 정관 근육이 수축함에 따라 정관을 통해 요도 입구로 이동 하는 누정(emission) 단계를 거쳐 방광경부의 수축, 구해면체근 및 회음근 등이 경련성의 강한 수축을 하여 요도를 통해 정액을 체외로 방출하는 사정(ejaculation) 단계로 이어진다.

정액이 배출되는 순간 남성의 몸은 경련을 일으키며, 뇌속 쾌감물질인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다량으로 분비한다(오르가즘).

유병률

현실적으로 조루증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제 조루증의 유병률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어렵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서 조루증의 유병률은 25~40%로 보고되고 있다(4~66%). 최근 국제 남성과학회에서 조루가 부부의 성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는데, 세계 남성 중 30%,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남성 31%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로는 2008년 대한 남성과학회에서 조사에서 50대 이상에서는 36.8%, 40대는 30.7%, 30대는 24.6%, 20대는 23.4%가, 또한 2016년 인터넷을 이용한 한국인 성기능 조사 연구에서 20대 19.5%, 30대 21.5%, 40대 21.0%, 50대 25.5%에서 본인 스스로 조루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자 2037명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 (2008, 대한남성과학회)

조루증의 종류

▶ 1차성 조루증(primary PE) = 평생 조루증(lifelong PE)

첫 번째 시도한 성관계부터 증상이 계속 이어진 경우로, 정신적(심리적 상처) 혹은 신체적(음경 귀두부 민감, 사정 신경전달 과정 이상) 원인이 그 배경이 된다.

▶ 2차성 조루증(secondary PE) = 후천성 조루증(acquired PE)

정상적인 성관계가 이루어져 오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음경, 요도, 전립선, 정낭, 방광의 질환이거나 내분비질환으로부터 기인한다.

▶ 혼합형 조루증

1차성과 2차성 유형이 섞인 경우

원인

조루증의 원인은 크게 심인성 요인과 신경생물학적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그 외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심인성 요인

초기 성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조건형성 때문에 조절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스트레스나 압박감, 불안감 등이 동반된다. 과거 성 경험에서 비롯된 조급증, 파트너 사이의 성 기대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자괴감 등이 원인이 되는데, 성 상대와 관계가 불편하게 되거나 성생리에 관한 지식 부족 등에 의해 악화된다고 한다.

청소년기부터 형성된 사정 위주의 빠른 자위 습관은 심인성 조루의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하는 요인이다.

▶ 신경생물학적 요인

중추신경계에서 사정 조절을 담당하는 사정중추에 문제가 있거나 성기 주변에 분포한 말초신경이 예민해져서 나타날 수 있다.

- 사정중추 이상에 의한 조루

사정은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GABA,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중 세로토닌이 사정 기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물질로, 조루증은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의 농도가 감소한 경우에 발생한다.

- 신경과민에 의한 조루

조루증은 정상 남성과 비교하여 음경의 감각과민성이나 과흥분성에 의해 발생한다.

- 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서의 조루

음경, 요도, 전립선, 정낭, 요도괄약근, 방광, 방광삼각부에 병이 있거나 내분비장아가 있어 생식선 기능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경우에도 조루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신장질환과 같은 신체적 질병들이 조루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생활습관 관련 요인

- 흡연과 음주

흡연과 지나친 음주는 혈액순환과 신체기능에 영향을 주어 조루를 유발할 수 있다.

- 운동부족과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비활동적인 생활과 심리적 피로, 과도한 체중은 성적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 약물남용

마약이나 몇 가지 약물들은 성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단

조루증으로 인해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사정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충분한 사정조절능력에 대한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평가한다.

▶ **성생활 병력과 검진**

조루증의 증상발현 시작 시기, 빈도, 얼마나 오랫동안 조루증이 동반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성생활의 빈도, 파트너와의 관계, 삶의 질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질내 삽입 후 사정시까지 시간 (IELT; Intravaginal Ejaculation Latency Time)**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내에 삽입된 후 왕복운동을 하다가 사정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초 시계로 측정하는데, 조루증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으로 환자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다. 그러나 아직 조루증을 진단하기 위한 공인된 질내 삽입 후 사정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조루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질내 삽입 후 40%는 15초 이내, 70%는 30초 이내로, 90%는 1분 이내에 사정을 하고 단지 10%정도의 환자만이 질내 삽입 1~2분 후에 사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 국제성의학회의 진단기준에 따르면 첫째, 첫 성관계 이후로 지속적으로 질내 삽입 전 혹은 삽입 후 1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사정과 둘째, 사정을 지연시키기 어려워 질내 삽입 후 3분 이내 이루어지는 사정이 조루증에 해당된다.

그러나 질내 삽입 후 사정시간은 객관적인 수치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관계의 시간, 성관계 시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내에 삽입된 깊이와 빈도, 배우자의 골반근육의 간장도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결과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자기입식 설문지 (PEDT; Premature Ejaculation Diagnostic Tool)**

전 세계적으로 조루증 진단에 이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과학회에서 2009년 한국어 버전을 만들었다.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항목당 0~4점 사이의 점수를 매긴다. 1~3번 항목은 사정 조절 능력을, 4번 항목은 성관계 시 사정에 의한 스트레스 정도를, 5번 항목은 성적 파트너와의 갈등을 점수화 시킨다. 이 설문 결과 11점 이상일 경우 조루로 진단하며, 10점 또는 9점은 조루 의심으로, 8점 이하는 조루증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PEDT(Premature Ejaculation Diagnostic Tool)					
	0점	1점	2점	3점	4점
1	사정을 지연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	약간 어렵다	보통 정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아주 어렵다
2	원하기 전에 사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없다(0%)	4번에 1~2번 정도(25%)	2번에 1번 정도(50%)	4번에 3~4번 정도(75%)	항상 그런거 같다(10%)
3	아주 미미한 자극에도 사정하십니까?				
	거의 없다(0%)	4번에 1~2번 정도(25%)	2번에 1번 정도(50%)	4번에 3~4번 정도(75%)	항상 그런거 같다(10%)
4	원하는 것보다 빨리 사정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5	사정에 걸리는 시간때문에 배우자가 불만족하는 것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많이 그렇다	매우 많이 그렇다

대한남성과학회 조루 자가진단표

치료

조루증의 치료방법은 행동치료, 약물치료, 수술치료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행동치료

사정에 이르기 전 성기에 대한 자극을 조절함으로써 사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압착요법(squeezing)'이나 '멈췄다 다시 하기(stop & start)' 등이 있다. 자신의 조루증상이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적용하는데, 단기적인 효과는 좋다고 평가되지만 파트너의 인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며 재발률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 멈췄다 다시 하기(stop-start technique)

사정감 느끼기 직전에 성행위나 자위행위 멈추고 완전 발기된 페니스가 절반가량 이완될 때까지 기다리다 다시 사정감 느끼기 전까지 성행위를 계속하는 방법이다.

- 압착요법(squeeze-pause technique)

사정이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귀두와 음경이 만나는 부분을 손가락 등으로 압박해 사정 충동감을 지연시킨 후 다시 성행위를 계속하는 방법이다.

▶ 약물치료

- 국소도포치료제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lidocaine)과 프릴로카인(prilocaine) 혼합물질을 성기에 바르는 젤, 스프레이, 크림형의 제제가 사용되고 있다. 음경 피부에 도포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소 마취효과가 나타나 음경의 감각저하를 유도하여 사정 자극 역치를 높여 사정이 지연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이 불편하고, 성기능 저하 혹은 사용자의 성감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성관계 시 약제가 음경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에 여성의 질 감각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관계 전에 도포한 제제를 씻어내거나, 도포한 음경 위로 콘돔을 씌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s)

중추신경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감소가 조루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질내 삽입 후 사정 시까지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SSRIs는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의 감소를 억제하여 조루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로, 매일 복용하는 법과 필요시에만 복용하는 법의 두 가지가 있다.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두통, 불면, 불안, 감각 혼란 등이 있다.

성분	상품명	반감기	용량	복용방법
fluoxetine	Prozac	1~3일	10~60mg	매일
sertraline	Zoloft	26시간	25~200mg	매일
paroxetine	Paxil	24시간	20~40mg	매일
dapoxetine	Priligy	1.5~1.6시간	30~60mg	필요시

- 삼환계 항우울제(TCA)

클로미프라민(clomipramine) 투여로 중추신경계 세로토닌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 PDE-5 억제제

조루증 치료 자체보다는 동반된 발기부전을 치료함으로써 조루증 치료효과를 동시에 얻는다. 또한 발기능 자체를 높임으로써 일차 사정 후에도 발기를 유지시키거나 2차 성교를 가능하게 하고, 조루증을 유발하는 수행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효과로 인해 조루증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트라마돌(tramadol)

중추적으로 작용하는 합성 아편양 물질로,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억제한다.

▶ 수술치료

- 음경배부신경절단술

음경 귀두 부위의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민한 경우 음경의 배부(등쪽)신경을 일부 잘라 감각이 전달되는 과정을 차단해서 사정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일부 환자에게서 성적 쾌감 저하, 신경통, 발기부전의 위험성이 나타난다.

- 귀두확대술

민감한 귀두의 점막 상피세포층 아래에 자기지방을 이식하여 감각을 둔화시키고 더불어 귀두 확대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국소도포치료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수술 치료 : 음경배부신경절단술

조루증의 치료

약학대학, 2023-1학기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장학금 3,750만원 전달



2023년 5월 31일 모교 102관(약학관) 교수회의실에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주관으로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어 후배인 약학대학 재학생들에게 3,750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정오부터 진행된 행사에는 약학대학 동문회장인 (주)노바렉스 권석형 대표, 최병원 동문회 사무부총장, 손의동 명예교수, 김희식 여동문회 회장, 송호선 병태생리학교실 장학회장, 박준상 약제반 동문회 장학위원장, 오태영 생약반 동문회장, 안철원 칼라무스 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약학대학 동문회 관계자들은 약학대학 교수진과의 회의를 거쳐 선정한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1학년 1명, 2학년 1명, 3학년 4명, 4학년 4명, 5학년 15명, 6학년 5명 등

총 30명의 약학대학 재학생에게 총 3,75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손의동 명예교수는 1호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약학대학 학생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에 힘쓰는 학생들이 될 것을 격려했다.

이어 권석형 동문회장이 "약학대학 선배들의 빛나는 업적과 전통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장학금을 위해 애써준 교수님들과 각 실험반 반장들, 동기회 반장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명예롭고 뜻깊은 자리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게 돼 영광이다"란 말로 학생들에게 축하를 전했다.

황광우 약학대학장은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선배들이 기금을 모아 전달하는 좋은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동문 분들께서 동문회에 많이 참석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학대학 동문회장 권석형 (주)노바렉스 대표, 발전기금 1억 쾌척



약학대학 동문회장인 (주)노바렉스의 권석형 대표가 우리 대학에 1억원을 쾌척했다.

4월 11일 '약학대학 동문회장 (주)노바렉스 권석형 대표 발전기금 전달식'이 201관(본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달식에는 권 대표를 비롯해 박상규 총장, 백준기 교학부 총장, 주재범 연구부총장, 이산호 행정부총장, 이무열 대외협력처장이 참석했다. 황광우 약학대학장과 나동희 학부장, 민혜영 주임교수, 최영욱 교수 등 약학대학 교수진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권 대표는 모교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1억원의 발전기금을 우리 대학에 기부했다.

권 대표는 우리 대학 약학과 75학번으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모두 우리 대학에서 받았다. 1983년 종근당 재직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제약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권 대표는 (주)노바렉스를 설립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전문가로 새롭게 출발했다.

건기식 및 기능성원료 OEM, ODM 업체인 (주)노바렉스는 1995년부터 건기식 외길을 걸어온 결과 현재 다수의 국내 외 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우뚝 섰다.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능력과 제조 품질을 자랑하는 독보적 1위 기업이다.

권 대표는 "약학대학 동문회장을 하며 느낀 모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싶었다. 발전기금을 통해 약학대학과 모교가 더 크게 발전하길, 그리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장은 "약학대학 동문회장이란 중책을 맡아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귀한 발전기금이 약학대학의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약학대학, 약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은 약학대학을 졸업해 약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약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약학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 약학대학이란 위상에 걸맞게 전체 평가영역 중 50개를 차지하는 필수항목 가운데 96%에 달하는 48개 항목을 충족했다.

우리 약학대학이 향후 5년간 유효한 약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하며, 공식적인 약학 전문인재 양성기관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약학대학이 한국약학교육평가원(약평원)이 주관하는 '2022년도 약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최장기간인 5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다.

2015년 처음 시행된 약학대학 평가인증은 약학대학이 약학 전문 인재양성에 필요한 기본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2025년부터는 약평원의 인증을 받

충실한 약학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으로 공식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황광우 약학대학장은 약평원이 지난달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개최한 '2022년 약학교육 평가인증서 수여식'에 참여해 인증서를 받았다.

황 학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인증평가를 위해 애써온 인증평가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오경택 교수와 참여 교수들을 비롯한 약학대학 전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동문회보 51호 사진 오류에 대한 사과 말씀

지난 51호 동문회보 문학산책 '여행을 묻다'를 기고해 주신 이종학(18회) 동문님의 사진이 바뀌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발생해서는 안될 편집상의 실수로, 동문님 본인은 물론 지인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리며 향후 동문회보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편집위원회의 다짐을 밝히는 바입니다.

동문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큰 동문회를 만듭니다.
회비납부, 의무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2022회계년도 회비내역 2022년 6월 ~ 2023년 5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3회	권석형, 강한구, 김수중,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방용남, 서동철, 신화섭, 윤명숙, 임준석, 이승하 조병훈, 최의한, 하충렬, 홍순옥	30회 김광식, 최병원
24회	이광섭, 이규삼, 함삼균	31회 심명섭
25회	김광호, 문태화, 이현수, 최두주	32회 조양연, 함인혜
26회	박정래, 최민규, 한갑현	34회 신수민
27회	곽나운, 박영달, 한봉길	35회 김진, 은형주
28회	구영삼, 김영희,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36회 임성호
29회	김은진, 김인혜, 김형수, 류형준, 이종민, 이종욱	39회 이정근
		41회 김소연, 김정민, 최명수

이사회비		150,000원
2회	황재수	22회 강희윤, 김인선, 김홍진, 박동우, 손의동, 오황영 유대식, 이명옥, 이영옥, 이준상, 이현희, 천경호 최광훈, 한만영, 한상훈
4회	이창우	23회 김진섭, 박찬남, 이계석, 임동현, 정관영, 조종호
5회	김재윤, 조동준	24회 김승재, 임무호, 장규옥, 조종래, 함한성, 황규진
6회	박정배, 안인혁, 유관열, 유상열, 유승균, 임완호	25회 고성권, 김완기, 김희섭, 이민원
7회	김영일, 정재일	26회 김안식, 김정수B, 손영상
8회	박번일, 배영애, 오창준, 임상묵, 조의환, 한석원	27회 박수길, 오순용, 오홍설, 최충식, 현기원
9회	권혁구, 김영빈, 김홍래, 이근배	28회 김유근, 신영무, 이병천, 전금용
10회	김명민, 박호일, 변도문, 심수일, 유정사, 정수길 정영기	29회 박용삼, 손병로, 유종운, 한일룡
11회	고승하, 김미자, 김창중, 박신규, 박찬희, 이철규 황공용	30회 김성배(김해승), 김연하, 김혜수, 최병태
12회	강옥희, 남기탁, 노덕재, 심재웅, 염윤기, 이관하 이효훈, 조택상	31회 오세정, 윤희정, 이미자, 이춘노
13회	구연홍,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안병식, 윤해선 이상길, 최창엽	32회 유명식, 이경우, 정영복
14회	구종모, 김동원, 박기진, 양인승, 정도언, 조병화	33회 김영재, 이정수
15회	조찬휘	34회 김보원
16회	권영복, 백승복, 송용만, 이은솔	35회 강의석, 송지숙, 오창현, 임종식
17회	선우영환, 신상직, 장재인	36회 김진수, 이정석, 임기민
18회	강응모, 김기명, 정명진, 조종형	37회 이정우, 장미경
19회	김경오, 남상규, 박효식, 안병호, 윤건섭, 이경욱 임종철	38회 최은영
20회	김현태, 김홍진, 류화승, 박기배, 배성진, 이극선 이상일, 이호선, 임경원, 정찬현, 최석중	39회 권성렬, 민필기, 박성훈, 한은경
21회	김수배, 김중호, 백운경, 양주석, 홍종오	42회 정원석
		51회 김홍진
		56회 이경민
		58회 김태수
		61회 이현나, 정영섭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심재창(12회), 박광재(12회), 김기형(26회), 김태성(17회), 진정주(38회), 이지윤(46회)	

일반회비		30,000원
4회	임호식	27회 권오승, 김재식, 김창식, 문연숙, 양건모, 염승호, 유경무, 이무택
5회	이수웅	이선애, 이연숙, 이정아, 전명수, 조광호, 채규미, 최충식, 최호진
6회	박수서, 문중찬, 신의명, 이만형, 이원걸, 이태호, 이풍기 임은순, 전보연, 정진석, 진교성	28회 김경완, 김상범, 김형준, 오상기, 이석원, 이혁빈, 장민수, 조승찬 조효규, 한성호
7회	김동완, 김홍배, 배정명, 박승면, 박종원, 송정애, 유상근, 유종현 윤정자, 이강형, 이상현, 이주학, 정연홍, 최명자	29회 김응관, 안성진, 이강현, 이연주, 이정란, 장귀연, 장우성
8회	가재춘, 강윤구, 김복근, 김진우, 김형이, 박희철, 안덕기, 유재 이경길, 이능자, 이백천, 이태하, 임영숙, 임진택, 장승자, 정달수 정수광, 정재영, 정재용, 정형숙, 주학철, 조수현, 조현인, 최귀령 최영자, 허근희, 허정자	30회 강성희, 고은숙, 김명란, 김상의, 도민숙, 문미례, 박병미, 박복자 박인주, 손은실, 이경숙, 이영복, 장부자, 조덕희, 최돈웅, 최현희 홍염미
9회	권태섭, 김학원, 노신희, 손광자, 이병호, 이해자, 이호식, 임 혁 정상모, 조병일, 최보혜, 최인자, 하동현, 한정희	31회 강미숙, 구상미, 김향수, 류문숙, 문희석, 박영란, 오대근, 유두중 유영숙, 이경옥, 이동익, 이문섭, 이선자, 이정희, 임기상, 장정인 최상임, 최윤실, 한영석
10회	김정남, 이원일, 박광일, 이장열, 전광석, 하광호	32회 김윤경(김향숙), 김재섭, 김정중, 김현경, 손수정, 신난원, 신은숙 안승희, 이경준, 임형미, 주재현, 정현삼, 채영주
11회	구자역, 김기영, 김철홍, 김학진, 남복석, 서세양, 송상부, 심재관 안홍신, 양계창, 이명옥, 이석태, 장현소, 전창환, 조명숙, 한창희	33회 김병호, 김정태, 박경록, 소정우, 유정순, 윤종배, 이보형, 이영주 이준복, 전병국, 최수향
12회	김대건, 김동욱, 김상철, 김신우, 김일영, 김창섭, 민영미, 박홍식 손용길, 신명희, 오형철, 옥정남, 윤성노, 이만오, 이상순, 이순우 이원주, 이정희, 임순성, 장광웅, 정광식, 정용오, 조정행, 조병숙 주성균, 최창묵, 한정수, 황순오	34회 김영미, 김용수, 김현숙, 김혜진, 노영화, 류지숙, 박경아, 박상권 백희숙, 성선경, 이선민, 이영은, 이 준, 임혜숙, 정성아, 정성욱 차은희
13회	김창식, 김태중, 김희겸, 문우호, 손찬규, 왕문화, 우동진, 이규선 이우식, 임채훈, 조성복, 최승기, 최호순, 홍성구	35회 김경실, 김성훈, 박민영, 손은경, 양정희, 우난숙, 이종만, 이화순 허진옥
14회	권진혁, 김명수, 김영일, 김중열, 류효성, 상경숙, 안해봉, 오태근 이병조, 이희영, 전봉선, 전영표, 채성기, 최인환, 최종택, 현수홍 홍성철	36회 김락영, 김미향, 민희정, 박선영, 박종구, 박화신, 방극상, 양성운 유복진, 이명숙, 이태건, 전상인, 정현희, 차인혜, 홍성원
15회	김태영, 박인호, 나인준, 송현숙, 이명숙, 이인석, 황인영	37회 김성업, 박수경, 백수형, 서승희, 신희관, 안의성, 장미현, 차선옥 천귀미, 한덕희, 황선관
16회	강명채, 권희문, 김광길, 박상환, 신규언, 윤영위, 전영주, 조연심 최정순, 한인희	38회 성치순, 이강국, 이창은, 최세웅, 함미경
17회	김대희, 김상집, 김재천, 신승백, 심상근, 양계순, 양희익, 이동우 이완철, 이희정, 전상훈, 정갑진, 정대진, 주완표, 최해광	39회 권연정, 김학순, 김해중, 방근철, 이용준, 전병선, 주훈정
18회	김상각, 남애숙, 문형진, 박광숙, 양만기, 여운숙, 오영선, 육득윤 이중학, 전춘이	40회 김나연, 박성신, 성중호, 이병두, 이상언, 정병찬
19회	고문찬(고재무), 남윤수, 민태형, 배영덕, 서원화, 유태일, 전현명 채희태	41회 구영준, 김신애, 박영진, 박지원, 송우현, 오현미, 안은진, 이미경 이상길, 이종혁, 이호섭, 최진희, 최현호
20회	구장림, 김영식, 김종갑, 김평자, 문주기, 민태형, 박광우, 방금숙 송영호, 이광영, 이길만, 장영철, 동천, 정영수	42회 김록원, 민명기, 송성훈, 엄충섭, 이희선, 이창경, 임태규, 황인영
21회	강성무, 김구영, 김동연, 김진자, 노재하, 박홍석, 백기홍, 송주식 송진용, 신길득, 신종화, 안병현, 어경남, 이만형, 이상일, 이상준 이승호, 장창만, 정재일, 조 북, 조홍윤, 진기상, 최병철, 한성희 한찬수, 한태식	43회 김중호, 송세현
22회	강홍철, 고경인, 김기욱, 김인규, 박성태, 이순명, 이은규, 장상대 장용운, 정태화, 정한용, 허 규	44회 고정봉, 김보영, 유경미, 양미선, 정영자, 정의찬
23회	김항만, 강호영, 권경자, 김순현, 김재한, 나용태, 박영근, 박찬중 서운출, 송명숙, 오신환, 이원걸, 이정대, 임창영, 정원국, 정중서 제갈희, 조근태, 천경호, 최경선, 한병철, 한치완	45회 고기현, 권영삼, 김정겸, 김지하, 김현경, 문경태, 박성희, 서태환 송혜림, 신미순, 이상영, 조동환, 조창균, 조태원, 홍정은
24회	강창주, 김관식, 김기환, 김정무, 김태환, 문숙희, 박길태, 윤원철 이동훈, 이영주, 이형수, 임철빈, 정상수, 정호진, 함기철, 홍순철 황규진	46회 강병균, 배종구, 오승희, 이동훈
25회	권세형, 김선열, 김태원, 김형욱, 서형식, 손현우, 이동규, 이수영 이승정, 이영제, 임홍기, 임홍욱, 장명열, 조경래, 조석현, 하성욱 한덕화	47회 최진희
26회	김봉일, 김유선, 김영후, 김윤수, 김정수A, 박주돈, 반수호, 손영득 심상수, 신국희, 신현동, 양승훈, 오승주, 이순아, 이윤일, 이종량 임완순, 조한미, 정기춘, 진희역, 최옥숙, 최종배	48회 강령아, 박수현, 백주민
		49회 김승준
		50회 박주현, 성인하, 우종식, 정민주
		51회 권세일, 박경태, 박병언, 박태욱, 송호선, 이명원, 장진, 정주철
		52회 강지선, 김동근, 김혜연, 이보람, 이진기
		53회 김가람, 김현숙, 배재우, 박연주, 이강은, 정유경
		54회 권세원, 최강인
		55회 박재형, 심재선, 이슬기, 임경선, 장자윤
		58회 변혜영, 한주희
		61회 김명중, 김세영, 박은혜, 양대형, 전휘섭, 정주호, 정진희
		62회 김동휘, 김민지, 김의석, 김혜진, 박제혁, 이혜령, 조 을
		63회 박지원, 이민규, 장윤희
		64회 김연준, 김지형, 이도연, 이재찬, 이현진, 정치환, 함석란 홍주현
		65회 강재원, 강지선, 김세민, 박기현, 박소연, 박연주, 박주연 전차희

2023회계년도 회비내역 2023년 6월 ~ 2023년 8월

회장단회비		600,000원
24회	정상수, 김동섭, 김승재, 김태두, 박길태, 변영건 양성삼, 윤원철, 이광섭, 이규삼, 이범도, 이희상 임무호, 장규옥, 정종근, 조중래, 최영욱, 최인원 최종정, 함삼균, 함한성, 황규진	29회 김인혜
25회	김광호, 이현수	30회 김광식
26회	한갑현	32회 김신규, 김익수, 임형미, 정선종
28회	구영삼, 김희식, 양덕숙, 이영주, 이해룡, 장원규	33회 강기석, 김정태
		34회 이선민
		36회 임성호
		45회 고기현

이사회비		150,000원
6회	임완호, 안인혁	23회 강한구, 권석형, 김수종, 김영출, 박종화, 박희용
7회	용영일	서동철, 윤명숙, 이계석, 이승하, 임준석, 정덕기
8회	박번일, 이백천, 조의환, 허근희, 한석원	정종서, 조병훈, 조종호, 최의한, 하총렬, 홍순욱
9회	이근배	24회 김동섭, 심영철, 이동훈, 이형수, 윤세형, 조중래
10회	김명민, 박호일, 심수일, 유정사	27회 오순용, 최충식
11회	김창중, 박신규	28회 김유근, 최용철, 한용문
12회	남기탁, 이관하, 조택상	29회 강춘원, 유종운, 한일룡
13회	구연홍, 문재빈, 이상길	30회 김해승, 김혜수, 최병태
14회	구종모, 김윤국, 김종열, 신광근, 조병화	31회 오세정
15회	조찬휘	32회 손수정, 이경우, 정영복
16회	백승복, 이은솔	33회 김영재, 이용석
17회	선우영환, 장재인, 전우준, 전상훈	34회 임현주
18회	강응모, 김기명, 조중형	35회 양윤정
19회	김행소, 이경옥, 임종철	37회 안의성
20회	김영식, 김현태, 김홍진, 류화송, 박기배, 이상일 이영희	38회 최은영
21회	김수배, 김중효, 백운경	39회 민필기, 박성훈, 방근철
22회	강희윤, 손의동, 이명욱, 이현희, 오황영, 한만영	57회 서해준
		58회 김은혜, 김태수
		62회 김준하, 박영호

일반회비		30,000원
21회	김동연	

평생일반회비		500,000원
김동완(7회), 조근행(7회), 심재창(12회), 박광재(12회), 김기형(26회), 김태성(17회), 진정주(38회), 이지윤(46회)		

2023-1학기 약학대학 동문회장학금 수혜자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	청호 송동헌장학기금	2,000,000	제약학	천승희
2	손의동장학기금	1,500,000	제약학	임수정
3	김명섭장학기금	2,000,000	약학	강진혁
4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강지원
5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곽준혁
6	본동문회	1,000,000	약학	김성용
7	본동문회	1,700,000	제약학	문해일
8	본동문회	1,300,000	약학부	박형창
9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박희용
10	본동문회	1,700,000	약학부	방희주
11	본동문회	1,300,000	약학	변경원
12	본동문회	1,700,000	제약학	서지은
13	본동문회	1,000,000	제약학	양지웅
14	본동문회	1,700,000	약학부	이나연
15	본동문회	1,300,000	약학	이혜윤
16	본동문회	1,300,000	약학	장지운
17	여동문회	1,000,000	약학부	박은서

번호	장학금명	장학금액(원)	전공	성명
18	26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송채린
19	26회 동기회	1,000,000	약학부	조성근
20	28회 동기회	1,000,000	약학	이육재
21	28회 동기회	1,000,000	제약학	진명진
22	안양동기회	1,000,000	약학	서우재
23	병태생리학교실동문회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김채은
24	병태생리학교실동문회 (병태생리학교실장학회)	1,000,000	제약학	양지웅
25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안현선
26	생약반동문회	1,000,000	약학	전성재
27	약제반동문회	1,000,000	약학	김동희
28	약제반동문회	1,000,000	제약학	안근우
29	큐엘파마(칼라무스)	1,500,000	약학	주정연
30	큐엘파마(칼라무스)	1,500,000	제약학	안상연
합 계		37,500,000		



하나가 됩시다!
24대 정상수화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김기명(18회)
편집위원장

때로는 무모하더라도 도전하지않으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한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 그것이 성장 입니다.
동문회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24대 집행부의 건승을 빌며...



박희용(23회)
편집위원

會者定離 去者必返
生者必滅 事必歸正
고맙습니다!

임성호(36회)
편집위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24대 집행부에 승선하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기간 지역약사회에 참여하면서 회무를 익혔고, 동문회 선배님들의
활동을 눈여겨 보며 언젠가는 모교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피해가지 않고 정면에서 동문회를, 그리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앞장서서 소통의 연결고리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REJURAN[®]



피부 속 세계,
리쥬란으로 채우다

PR 파마리서치

광고심의필:심의번호 조합 2023-31-031(유효기간 26.08.22)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조직수복생체재료. 성인의 인면부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용

생약성분으로

장이 편한 변비치료제

굿모닝에스과립은? 변비로 답답한 아침이 아닌 쾌변으로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비 개선에 미치는 굿모닝에스과립®의 유효성 및 안전성: 단일기관, 무작위배정, 양측눈가림, 활성대조, 탐색적 임상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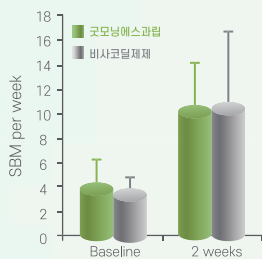
* 소속: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 저자: 주문진, 김나영, 신철민, 박영수, 윤혁, 최용훈, 이동호

* 시험방법: 총 50명 임상시험 대상자(19~75세의 경증 또는 중등도의 변비 증상을 가진 성인)에게 무작위 배정하여 2주간 각 약물

(굿모닝에스과립 1일 1회 1포 | 비사코딜 제제 1일 1회 2정)를 투여 후 유효성 평가(배변횟수 및 형태, 복통 횟수 및 강도 등) 및 안전성 평가

* 출처: Korean J Gastroenterol 2022; 80(1): 1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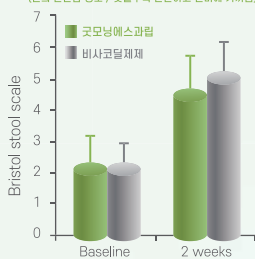
SBM per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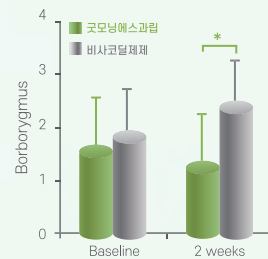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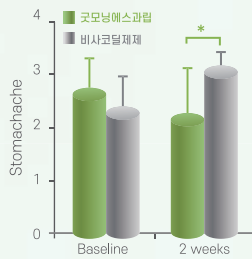
굿모닝에스, 비사코딜 제제 모두 배변 횟수, 배변 형태 변화량이 증가하였습니다.

Bristol stool scale

(변의 단단함 정도 / 낮을수록 단단하고 변비에 가까움)



Stomachache & Borborygmus



굿모닝에스가 비사코딜 제제보다 복통과 복명이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0.05)

Hanmi

Global · R&D 선도

한미약품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Hanmi

Your NOVA LIFE partner,
We light up your NOVA LIFE

노바렉스 NOVAREX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원료를 개발, 생산하는
대한민국 1등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입니다.
첨단화된 기술력과 생산설비로 품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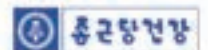


NOVAREX 고객사

국내외 유수의 기업에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신제약(주)사이언스



오송공장 (본사, 생명과학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4로 80
오창공장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 64 서울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310 유니온센터 2층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www.caupharma.com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610-1호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이메일 capa21@hanafos.com